

1위 독주·구름 관중... 다 가진 광주 FC

K리그2 역대 최다 무패 기록 경신...2위 부산과 승점 5점차 총 관중 3만7090명 지난해 기록 넘어...관중 유치상 2관왕

프로축구 광주FC가 2019시즌 성적과 관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광주는 올 시즌 K리그2의 절대 강자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9경기 연속 무패로 K리그 2 역대 최다 무패 기록을 갈아치웠고, 20라운드 첫 패배 이후 다시 1승 3무를 기록하면서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다.

앞선 24라운드 2위 부산아이파크와의 경기에서는 극적인 1-1 무승부를 이루면서 1위(14승 9무 1패·승점 51) 독주 체제를 굳건히 했다. 2위 부산과는 승점 5점 차다.

부산의 추격 의지를 꺾고 승격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탄 광주는 뜨거운 성적을 바탕으로 흥행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다.

올 시즌 홈 11경기에 3만7090명이 찾으면서 이미 지난해 총관중(2만7393명)을 넘어섰다.

특히 광주는 13라운드부터 24라운드까지 치러진 홈경기(4게임)에서 총 1만7538명의 관중을 불러들였다. 평균 관중은 4385명이다.

이는 지난 1차(1-12라운드) 기간 대비 평균 1591명 증가한 수치다.

앞서 광주는 1차 기간 7번의 홈경기에서 1만 9552명의 관중수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광주는 22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3-24라운드 관중 유치 성과와 마케팅 평가를 평가해 선정한 '풀 스타디움상'과 '플러스 스타디움'상을

받았다.

'풀 스타디움상'은 가장 많은 관중을 유치한 구단에 돌아가며, '플러스 스타디움상'은 전기 대비 관중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구단에 주어진다.

광주는 1위 독주 속에 2관왕의 영예를 안으면서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광주 경영측 단장은 "경기장을 찾아준 팬들의 사랑은 광주가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우리의 목표를 향해 구단과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낀다. 그라운드에서 열정과 끈기로 반드시 승격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리그2에서는 FC서울(풀 스타디움·플러스 스타디움상)이 2관왕이 됐다.

팬 친화적인 활동을 펼친 구단에 주어지는 '팬 프렌들리 클럽'상은 각각 대구FC(K리그1), 서울이랜드(K리그2)에게 돌아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이요뜸·전남 정재희·김준수 K리그2 베스트 11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광주FC의 1위 독주에 힘을 실어준 이요뜸이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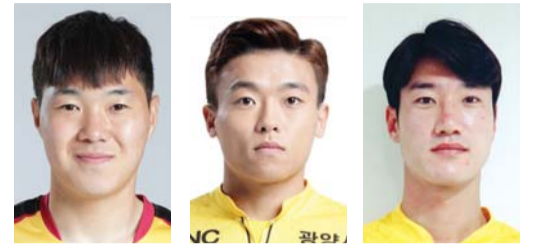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1일 2019 K리그2 24라운드 10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부산아이파크와의 홈경기에서 0-1로 뒤진 후반 42분 극적인 동점골을 넣은 광주 수비수 이요뜸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요뜸은 환상적인 프리킥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면서 거세게 추격해온 부산을 승점 5점 차로 묶었다.

전남드래곤즈의 2-0 승리에 역할을 한 정재희(MF), 김준수(DF)도 베스트 11에 포함됐다.

정재희는 아산무궁화와의 홈경기에서 1-0으로 앞선 후반 39분 추가골을 넣으면서 팀 승리에 쐬기



이요뜸 정재희 김준수

를 박았다. 지난 12일 아산에서 전역하고 돌아온 김준수는 옛 동료들을 잘 막아내며 무실점 승리에 역할을 했다.

이와 함께 전남은 5경기 만에 승리를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야수 고민 풀릴까

KBO 26일 신인 드래프트 KIA, 6번째로 지명권 행사

2020년 KBO리그 그라운드 오를 새 얼굴들이 호명된다.

KBO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0 KBO 신인 드래프트를 연다. KBO 신인 드래프트는 1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진행되며, 지명은 2018년 팀순위 역순으로 이뤄진다. 지난 시즌 5위를 기록한 KIA는 NC-KT-LG-롯데-삼성에 이어 6번째로 지명권을 행사한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 대상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794명, 대학교 졸업 예정자 276명, 해외 아마 및 프로 출신 등 기타 선수 8명 등 총 1078명이다. 이중 100명의 선수가 KBO리그 구단의 선택을 받게 된다.

올해 드래프트부터는 대학야구 활성화를 위해 대졸 예정 선수 지명이 의무화된다.

우선지명을 통해 광주일고 투수 정해영을 지명한 KIA는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야수 쪽에 더 무게를 두고 10명의 선수를 선택할 예정이다.

투수 유망주 영입에 공을 들였던 KIA는 올 시즌 '짧은 마운드'를 통해 마운드 성장세를 이뤘다. 하지만 외부 영입을 통해 꾸려왔던 야수진은 '포지션 중복'과 '세대교체'라는 숙제가 걸린 상황이다.

한편 2020 KBO 신인 드래프트는 케이블 스포츠 채널 SPOTV2와 MBC SPORTS+,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서 생중계된다.

지명 명단은 KBO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꺾었다! 세계 1위 한국 배드민턴 국가대표 최승규(왼쪽·요넥스)와 서승재(왼쪽대)가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자복식 32강에서 케빈 산치아 수카물조와 마커스 페르난디스 기데온(인도네시아)에게 승리한 뒤 환호하고 있다. 최승규-서승재는 이날 세계랭킹 1위 수카물조-기데온을 2-1(16-21 21-14 23-21)로 물리치고 16강에 올랐다. /연합뉴스

8강서 멈춘 우승의 꿈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광주일고, 강릉고에 3-8 패

광주일고의 봉황대기 도전이 8강에서 멈췄다.

광주일고가 22일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47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8강전에서 강릉고에 3-8로 졌다.

마운드가 흔들리면서 광주일고가 먼저 점수를 내줬다. 2회초 수비에서 광주일고 선발 정해영이 선두타자 김주범을 안타로 내보낸 뒤 볼넷 2개 등을 허용하면서 2사 만루에 몰렸다. 그리고 폭투로 선취점을 내줬다. 이어 9번 타자 허인재에게 2타점 2루타를 맞으면서 0-3이 됐다. 안타 2개 1사 1-3루에 몰린 4회초, 이번에는 강릉고 테이블세터 홍중표와 정준재에게 연속 안타를 내주면서 점수가 0-6까지 벌어졌다.

반면 광주일고 타선은 임성준-최지민-김진욱-엄지민으로 이어진 강릉고의 투수진에게 13개의 삼진을 당하면서 고전했다.

특히 4회말 사사구 두 개와 상대 폭투로 만들어진 무사 2-3루에서 1점 밖에 뽑지 못한 게 아쉬웠다. 또 광주일고는 정도웅-한지훈-조형우로 이어지는 클린업트리오만 안타를 기록하는 등 산발 5안타로 3점을 만드는데 그치면서 3-8 패배를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패배의 아이콘' 아스톤 빌라 팬들에겐 영웅

올 개막전 실수로 역전 골 허용 등 EPL서 썩 20경기 연패 '역대 최다' 지난해 후반기 주장 달고 2부리그 13경기 1패...3년만에 팀 승격 주도

'소속 팀을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시킨 로컬보이.', '패배를 부르는 사나이.'

영국 버밍엄의 144년 전통을 보유한 축구팀 아스톤 빌라 팬이 바로보는 잭 그릴리쉬(24)다.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그가 출전했을 때 팀의 성적 때문이다.

그릴리쉬는 과거 시즌 포함 프리미어리그 소속으로 썩 20경기에서 팀에 승리를 안겨주지 못했다. 20경기 전패. 1992년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가 출범한 이후 특정 선수가 뛰었을 때 팀이 연패한 기록은 20경기가 최다이다.

그릴리쉬는 지난 17일 열린 본머스전에는 풀타임 출전해 팀 동료인 더글라스 루이스의 골을 도왔다. 하지만 팀의 1-2 패배를 막지 못했다. 그로서는 프리미어리그 개인 최다연패인 20패를 기록, 총격은 더욱 컸다. 더구나 전력이 비슷하다고 평가받는 본머스 전이었다.

그는 앞서 리그 개막전인 토트넘전에서는 뼈아픈 실수를 범해 프리미어 리그 복귀 신고식을 호되게 치렀다.

전반 9분 팀 동료 맥긴이 선제골을 기록하며 토트넘을 상대로 후반 28분까지 리드를 지켜나갔다.

하지만 그릴리쉬는 결정적 실수로 역전의 빌미가 됐다. 후반 40분 문전에서 드리블하다 에릭 라멜라에게 볼을 뺏았기는 바람에 해리 케인에게 역전 결승골을 내준 셈이 됐다.

기록만 보면 그릴리쉬는 '패배의 아이콘'이지만 아스톤 빌라팬들에게는 영웅이다.

2013-2014시즌 18살에 성인무대에 데뷔한 그릴리쉬는 지난 2014-2015시즌 2연패를 당한 이후 다음 시즌 16경기에 출전했으나, 팀은 16경기를 모두 내졌다. 결국 팀은 챔피언십리그로 강등됐다.

그릴리쉬는 지난 시즌 후반기 주장 완장을 차고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막판 13경기에 출전해 11승1무1패로 팀을 3년만에 프리미어리그로 이끌었다.

그 당시 13경기 동안 가족이 벗겨지고 곳곳이 헤진 축구화를 고집했다. 그는 이 축구화를 신고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을 승격시켰다. 팬들 사이에서 그릴리쉬의 축구화는 행운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팬들은 그를 '로컬보이'로 각별하게 여긴다. 소속 팀의 연고지인 버밍엄에서 태어나 6살에 클럽 유스로 입단한 그릴리쉬는 한 차례 임대(노츠 카운티)를 제외하면 팀을 떠난 적이 없다. 토트넘 등 빅클럽



잭 그릴리쉬가 잉글리시 챔피언십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전에서 더비카운티 꺾은 뒤 플레이오프 우승 컵을 들고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아스톤빌라 공식홈페이지 캡처>

팀의 러브콜에도 아스톤빌라를 지켰다.

부상과 이변이 없는 다음 라운드 선발 출전이 유력시 되는 그릴리쉬는 오는 24일 홈경기장 빌라파크에서 에버튼을 상대로 기록마감에 도전한다.

그릴리쉬가 상대하는 에버튼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대대적인 전력 보강을 했다. 유벤투스에서 촉망 받는 공격수 모제스 킨과 FC바르셀로나에서 임대

이적한 안드레 고메스를 완전 영입했다.

이적시장 마감 직전에는 아스날에서 활약했던 알렉스 이워비를 깜짝 영입했다. 에버튼은 잉글리시 프리미어 2라운드 현재 1승 1무로 9위를 달리고 있다. 그릴리쉬의 개인 최다 연패 기록 마감은 험난해 보인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